



# “시나리오 보자마자...주인공은 송강호”

장훈 감독이 6년 만에 신작 '택시운전사'를 내놨다. 남북 북단의 현실을 다룬 '의형제'(2010),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고지전'(2011)에 이어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한국 현대사를 스크린으로 불러냈다.



## 영화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

**민주화운동 보다 인물 중심으로  
택시기사 만석 내적변화에 초점  
외부인 통해 5·18 참상 그려**

▲ 영화 제작 동의를 구하려고 2015년 말 독일로 가 힌츠페터씨를 만났다. 당시 저도 궁금했다. 어떤 심정으로 그분이 광주를 취재했는지, 기자정신인지 아니면 사명감인지 말이다. 직접 물어봤더니 “기자니까 당연히 가야지”라는 당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기자니까 자기 눈으로 진실을 목격하고 보도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특별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당연한 대답이 돌아오니까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

그분을 실제로 만나보니 굉장히 상식적이고 배려심이 깊고 유머감각이 있는 분이셨다. 영화 제작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셨다. 독일 배우는 누가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도 했다. 첫 만남 이후 자주 볼 줄 알았는데, 결국 독일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다. (힌츠페터씨는 2016년 2월 지방으로 별세했다)

-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은 어떻게 캐스팅했다.

▲ 처음부터 크레취만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독일 에이전시에 연락했더니,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이고 너무 바빠서 캐스팅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다른 배우를 알아보려 독일이 갔는데, 토마스 크레취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연락이 닿아 시나리오를 보냈더니 만나고 싶다고 해서 크레취만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집으로 찾아가다.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먼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 송강호도 캐스팅 0순위였다고 들었는데.

▲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배우가 송

강호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마치 송강호의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았다. 만석 캐릭터는 관객이 동일시해야 하는 인물이다.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관객들이 따라가고 내적 변화를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결국, 송강호밖에 생각 안 나더라.

- 이 영화는 어디까지가 실화인가.

▲ 1980년 5월 20일 만석과 힌츠페터가 택시를 타고 광주로 간 뒤 21일 돌아오는 1박 2일의 여정은 사실이다. 다만, 만석의 캐릭터는 실제로 알려진 것이 없다. 영화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다. 보통의 서울 소시민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었다. 광주의 택시기사 황태술(유해진 분)과 광주 대학생 구재식(류준열)도 증언집이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극 중 만석이 광주를 빠져나갈 때 택시 기사들과 경찰들 간 벌어지는 카 액션도 영화적으로 넣은 부분이다. 사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장면이었다. 가능한 한 멋있게 찍지 않고, 감정적으로 찍려고 했다. 택시 기사들의 희생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 만석은 서울로 차를 돌려다가 다시 광주로 유턴하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

▲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배치했다. 예를 들면 광주 상황을 왜곡 보도한 신문, 광주 상황에 대한 식당 주인과 손님 간의 대화 등이다. 최종 편집에서는 빠졌지만, 카센터 직원이 만석의 차를 수리하다가 힌츠페터의 필름 통을 발견하는 장면, 황태술로부터 받은 10만원으로 계산하는 장면 등도 찍었지만, 마지막에 뺐다. 굳이 그런 장치들이 아니더라도 송강호가 연기로 설명해줬다.

- 차기작은 뭐가.

▲ 사극이다. 또 남자 영화다. 이운택이 쓴 인기소설 '궁리'가 원작인 영화로, 원작 소설을 좋게 봤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내부자들'을 만든 김원국 대표가 제안해 함께 영화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트로트 황제’ 나훈아 돌아왔다

11년 만에 새 앨범 ‘드림 어게인’으로 컴백



울림 깊은 음색에 구성된 목소리, 물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꺾기 창법은 세월을 거슬렀다.

11년 만에 컴백한 ‘트로트 황제’ 나훈아(본명 최홍기·70)가 17일 공개한 새 앨범 ‘드림 어게인’(Dream Again)에서 변함없는 목소리를 들려줬다.

타이틀곡 ‘남자의 인생’은 경쾌하고 대중적인 멜로디의 트로트로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 시대 남자들을 위로하는 노래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남자의 인생’ 중)

이 시대 남성에게 보내는 응원가이자 장년이 된 자신의 꿈을 응원하는 듯한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앨범 발매 전 소속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

음이 다치고 지친 국민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음악임을 자부한다”는 설명과도 맞닿는다.

나훈아는 최근 복귀를 선언하면서 가슴에 담은 꿈을 세상에 꺼내놓겠다고 밝혔다. 11년 전 마이크를 놓은 이유로 “꿈이 고갈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런 심정을 대변하듯 첫 트랙은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연주곡인 ‘프롤로그, 꿈’이다. 떠나간 사랑에 대한 절절한 아픔을 토해낸 ‘당신아’, 흥겨운 브라스 연주가 울러 퍼지는 가운데 경상도 사투리로 구슬지게 부른 ‘아리아에(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죽는시능’, 청춘에 대한 연민을 노래한 마지막 곡 ‘내 청춘’까지 다채롭다.

그간 대표곡 ‘잡초’와 ‘무시로’ 등 자작곡을 즐겨 부른 싱어송라이터답게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도 50여 곡을 작곡한 뒤 선곡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부산 출신인 나훈아는 1968년 심형석 작곡의 ‘내 사랑’과 ‘약속했던 길’로 데뷔해 ‘천리길’, ‘사랑은 눈물의 씨앗’, ‘임 그리워’, ‘떠나면 고향’, ‘물레방아 도는데’, ‘고향역’을 비롯해 자작곡인 ‘영영’, ‘무시로’, ‘잡초’, ‘사랑’, ‘홍시’ 등을 히트시켰다.

또 그는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한 목포 출신 남진이 월남 파병을 마치고 1971년 컴백하자 숙명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가요사에 남을 명승부를 펼쳤다.

새 앨범은 물론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는 컴백 공연도 11월 3~5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24~26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12월 15~17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수순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 아침
10	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1대 100(재)		
12	00 KBS 뉴스 12	00 학교 2017(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밤상(재)	05 생생정보 스페셜	20 헬로킴시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목?목! 키즈스쿨 55 수반 스토리 2	00 뉴스브리핑
3	05 명견만리(재)	00 자동차부속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머리(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러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기획 창 55 송터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잃어버린 좋고 아니면 밤비바침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여행> - 2부 상파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성년 돌고기(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머릿대 들깨탕과 감자조림)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 08:00 딩동방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왕강한 소방차 레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 (산에서 새우를 낚는 부자父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크-7요일(재) 13:40 장수의 비밀(재) 14:30 레이디비그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잭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시계마을 타기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공 16:45 딩동방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깨뚜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20:50 세계테마기행 <우리 지금 만나 장미의 캐나다 2부 잊혀지지 않네 토피노> 21:30 한국기행 <절벽과 계곡사이 2부 물 위를 걷는 산> 21:50 EBS 다크프라이드 <황금 비늘의 비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크- 7요일 <우리 형 - 경주권 협착증 외>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죽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 (음 윤5월 25일 丙午)

<p><b>子</b></p> <p>48년생 준비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이다. 60년생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놓여 있다. 72년생 편견을 버리고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만하다. 84년생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흔들림 없는 쫓대를 가져라. 행운의 숫자 : 01, 44</p>	<p><b>午</b></p> <p>42년생 마음이 가는 곳으로 임라라. 54년생 답답해졌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이다. 66년생 현혹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라. 78년생 끈질기게 밀어붙인다면 성취하리라. 90년생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7, 35</p>
<p><b>丑</b></p> <p>49년생 기다리던 소식 대신 더 중대한 위치에 이른다. 61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단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73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85년생 무난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71</p>	<p><b>未</b></p> <p>43년생 변동할 여지가 없다. 55년생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위상이나. 67년생 허를 잘못 사용하면 번복 당한다. 79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91년생 형세가 바뀌면서 무의미해진다. 행운의 숫자 : 54, 33</p>
<p><b>寅</b></p> <p>50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 성과가 클 것이다. 62년생 서로 간의 처지가 뒤바뀔 수도 있으니 처세를 잘 해야겠다. 74년생 가만히 살펴보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86년생 초기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겠다. 행운의 숫자 : 13, 58</p>	<p><b>申</b></p> <p>44년생 반복될 수도 있는 구도여서 실망하기에 충분한 마당이다. 56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68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이 있다. 80년생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7, 05</p>
<p><b>卯</b></p> <p>51년생 기존의 동세와는 파격적으로 판이해질 수도 있다. 63년생 만류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다. 75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문제시할 필요 없다. 87년생 부주의한다면 큰 일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88</p>	<p><b>酉</b></p> <p>45년생 밤심한다면 급경사의 내리막길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7년생 중간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69년생 만사를 제쳐 두고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81년생 손실이 발생할 수다. 행운의 숫자 : 73, 99</p>
<p><b>辰</b></p> <p>52년 길성이 시종일관 따라다니니 이르는 곳마다 상서로움이 있다. 64년생 사리에 밝은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76년생 모순 구조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리라. 88년생 막연히 추측하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35, 33</p>	<p><b>戌</b></p> <p>46년생 전환하기에는 너무 늦은 길목에 이르렀다. 58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70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82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9, 10</p>
<p><b>巳</b></p> <p>53년생 승은 재주로 인한 이익이 따르리라. 65년생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77년생 한 번에 한정된 것이니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89년생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 철저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3, 45</p>	<p><b>亥</b></p> <p>47년생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면책할 길을 찾아라. 59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을 수다. 71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83년생 역경은 경험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나. 행운의 숫자 : 12, 0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